

2011



# 최적의 투자처 캐나다

소프트웨어  
캐나다의 경쟁력

Canada 

## 세계 주요 투자기업

- 어도비 시스템즈(Adobe Systems Inc.)
- IBM코퍼레이션(IBM Corporation)
-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Microsoft Corporation)
- 오라클 코퍼레이션(Oracle Corporation)
- SAP AG
- 아그파 헬스케어(Agfa HealthCare)
- SAS인스티튜트(SAS Institute Inc.)

## 캐나다 선도기업

- 오픈텍스트 코퍼레이션(OpenText Corporation, 기업 콘텐츠 관리)
- 데카르트 시스템즈(The Descartes Systems Group Inc., 물류)
- 20-20테크놀로지스(20-20 Technologies Inc., 디자인)
- MKS Inc.(애플리케이션 생명주기 관리)
- 브리지워터 시스템즈 코퍼레이션(Bridgewater Systems Corporation,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클래리티 시스템즈(Clarity Systems Ltd., 금융)
- 레드니(Redknee Inc., 통신)
- 업솔루트 소프트웨어(Absolute Software Corporation, 자산관리)
- 플랫폼 컴퓨팅 코퍼레이션(Platform Computing Corporation)

## 최근 캐나다 투자현황

### IBM

IBM은 2011년 4,200만 달러 규모의 IBM컴퓨트클라우드센터(Compute Cloud Centre)를 토론토에 개설했으며 이 센터는 캐나다에서 가장 앞선 기술의 전산시설 중 하나이다. 캐나다 기업들은 각자 사용하는 전용서버 등의 컴퓨터 시설에 대한 비용만 지불하면서 응용 프로그램을 안전하게 개발하고 호스팅 및 테스트할 수 있다. 이 시설은 비용을 절감시키는 동시에 효율성을 증진하고, 분석(analytics)이나 모바일 컴퓨팅과 같은 신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준다.

### 구글(Google)

2010년 8월 구글은 자사의 사업 브랜드 강화를 위한 캐나다 진출 확대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구글은 이미 토론토, 몬트리올, 오타와와 온타리오주 키치너-워털루 지역에 소재한 캐나다 사무소에 150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다.

### 아그파 헬스케어(Agfa HealthCare)

진단영상과 보건의료 IT 솔루션 공급업체인 아그파헬스케어는 2010년 2월 온타리오주 워털루에 새로운 R&D 시설을 건립한다고 발표했다.

### HSBC

2010년 1월 HSBC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버나비에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시설을 설립했다. 4,700만 달러\* 규모의 이 건물은 전 세계의 HSBC 사업체를 위한 소프트웨어 솔루션 개발을 담당하는 850명 이상의 인력을 수용할 수 있다.

\* 별도의 표기가 없는 경우, 금액은 모두 캐나다 달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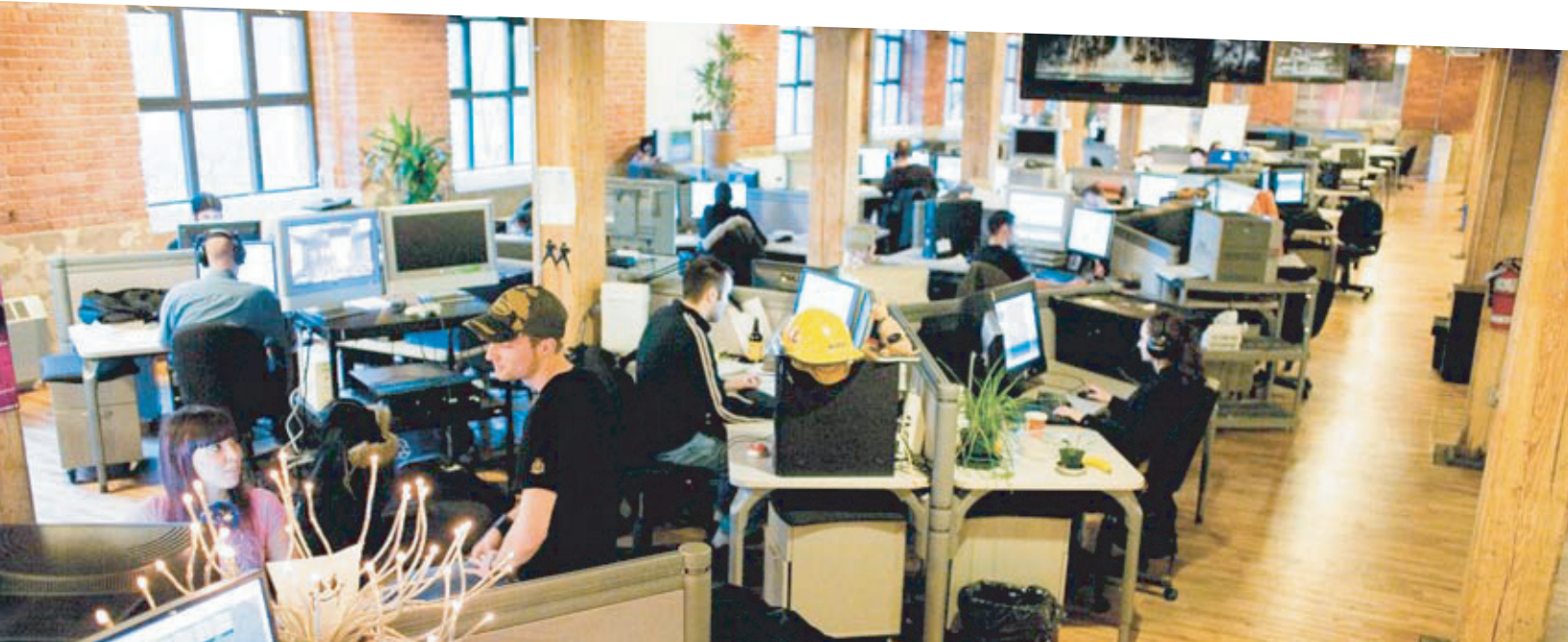


사진 출처: 몬트리올 유비소프트(Ubisoft)

## 캐나다 소프트웨어 산업: 혁신으로 앞서가다

2010년 소프트웨어 매거진(Software Magazine)이 발표한 세계 500대 소프트웨어 기업 목록 중 20개가 캐나다 기업이었다. 이는 한 국가가 차지한 비율에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캐나다의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은 31,500개 기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중 79%가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서비스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2011년 기준, 캐나다 ICT 산업은 54만 5,000명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절반이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 종사한다.

캐나다의 소프트웨어 산업은 기업 애플리케이션, e-보안, e-건강, 영상, 금융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강세를 보인다. 지난 5년간 캐나다 소프트웨어 산업은 미국계 기업을 중심으로 한 많은 외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했다.

**캐나다의 ICT 인력 · 충실한 고급 숙련 인력:** 캐나다의 노동인력은 높은 교육수준을 갖추고 있다. 전체 근로자 가운데 85%가 일반대학이나 칼리지 교육을 받았으며 74%는 고등교육과정 이상의 학위를 보유하고 있다. 캐나다 노동인력의 70%에 가까운 이들이 25~44세 연령집단으로, 고용주가 중시하는 경험과 교육을 모두 겸비하고 있다.<sup>1</sup> 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 중 46% 이상이 해당 직종에 대해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ICT 근로자의 절반은 해당 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이다.

**연구개발(R&D):** ICT 산업은 캐나다 민간부문에서 R&D 투자 규모가 가장 큰 분야이다. 캐나다의 10대 R&D 투자기업 중 5개사가 ICT 업계에 포진해 있다.<sup>2</sup> 2002년 이래로 연평균 성장률 14.5%를 기록해 온 캐나다 소프트웨어 산업은 R&D 활동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 이 업계의 R&D 총지출은 2009년에 10억 달러를 넘는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sup>3</sup>

**혁신:** 캐나다의 혁신문화는 IBM코그노스(IBM Cognos), 오픈텍스트(OpenText)와 같은 기업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분야의 글로벌 선도기업을 배출하는 역할을 했다. IBM, 마이크로소프트, SAP, SAS, 오라클, EMC코퍼레이션을 비롯한 수많은 다국적 기업이 캐나다 소프트웨어 분야에 투자했다. 2,500명 이상의 개발자를 보유한 IBM의 토론토 소재 소프트웨어 R&D랩은 전 세계에 퍼져있는 IBM의 연구소 중 세 번째로 규모가 크다. 밴쿠버에 위치한 마이크로소프트의 대규모 개발센터는 분산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자사의 글로벌 전략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이곳 직원들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제공하는 모든 상품 및 서비스 업무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몬트리올, 토론토, 밴쿠버에 설립된 SAP캐나다(SAP Canada)의 R&D 개발 랩 또한 2,000명이 넘는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

**기업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캐나다는 기업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EAS)에 대한 연간 지출이 10억 달러에 육박함에 따라 금융서비스, 정부, 보건 의료, 제조업과 같은 핵심산업 분야에서 중요한 내수시장을 형성하고 있다.<sup>4</sup> 더욱이 EAS 분야에 대한 연간 지출이 미화 130억 달러를 넘어서는 세계 최대의 IT 시장인 미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이점이 있어 북미 시장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선호할만한 기업친화적 장소이다.

**e-보안:** 캐나다에 본거지를 둔 유수의 다국적 사이버보안업체로는 CA테크놀로지스(CA Technologies), 맥아피(McAfee), 시만텍(Symantec), 시스코 시스템즈(Cisco Systems), EMC코퍼레이션(EMC Corporation) 등이 있다. 레이디얼포인트(Radialpoint), 서티콤(Certicom) 등은 캐나다 국내의 e-보안 기업들이다. 캐나다는 사이버범죄 퇴치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관련 기업들은 정부를 대상으로 한 솔루션 개발 기회를 얻을 수 있다. 2010년 캐나다의 e-보안 부문 지출은 4억 4,000만 달러를 넘어섰다. 캐나다 진출 기업들은 IT 예산 규모가 크고 e-보안을 중시하는 보건 의료나 금융서비스 분야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게 된다.

**e-건강:** 캐나다에 자리를 잡고 e-건강 솔루션을 제공하는 세계적 다국적기업에는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아그파헬스케어(Agfa HealthCare), GE헬스케어(GE Healthcare), 필립스헬스케어(Philips Healthcare), IBM캐나다(IBM Canada), 캐논캐나다(Canon Canada), 서너(Cerner), 지멘스(Siemens), 맥케슨(McKesson), 케어스트림헬스(Carestream Health, 구(舊) 코닥헬스이미징) 등이 있다. 캐나다가 향후 10년에 걸쳐 '정보 인프라(infostructure)' 구축에 100~12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sup>5</sup> 계획에 매진함에 따라 보건 IT는 최우선 산업분야로 부상하여 기업들에게 기회와 장이 되고 있다.

1 정보통신기술위원회(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Council), 2000~2007 IT직종 인력 조사자료 분석, 2008년 3월.

2 리서치인포소스(RESEARCH Infosource Inc.), 캐나다 100대 R&D 투자기업, 2009년.

3 브랜햄그룹(Branham Group), 캐나다 ICT산업: 국가적 관점, 2010년 6월.

4 가트너데이터퀘스트(Gartner Dataquest), 예측: 기업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2006~2011), 2008년 10월.

5 캐나다헬스인포웨이(Canada Health Infoway), 2008년.



## 캐나다의 경쟁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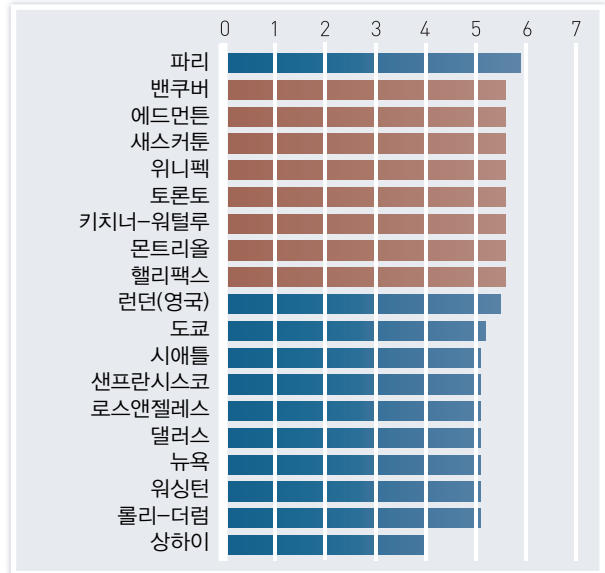
### 장점:

#### 지적재산권 존중

특허권과 상표보호를 포함하는 지적재산의 보호는 주로 혁신적인 기술활용에 의지하여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 있어 필수적인 부분이다.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캐나다는 높은 수준의 지적재산 보호를 제공한다.

- ▶ 이 도표는 0에서 7까지의 척도로 선별된 도시들을 평가한 것이다. 0점은 지적재산에 대한 보호가 '매우 빈약'함을, 7점은 '매우 강력'함을 의미한다.

### 지적재산 보호



출처: iDi 벤치마크,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보고서(2010/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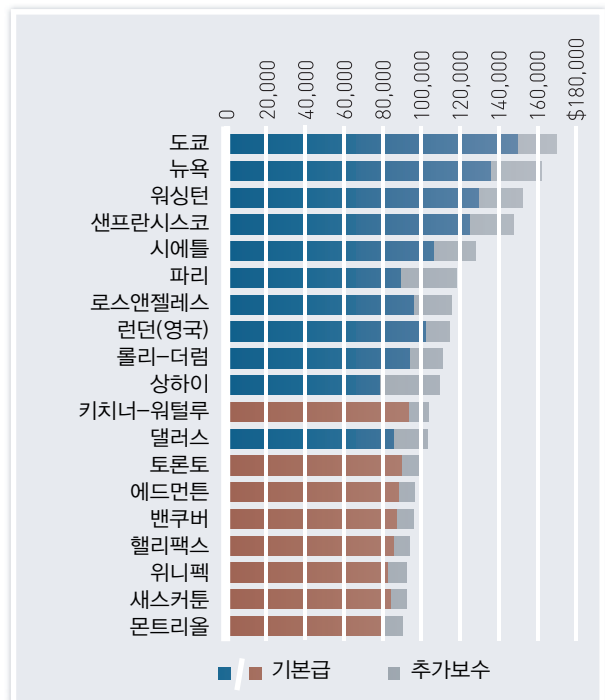
### 장점:

#### 소프트웨어 디자인 부문의 임금비용 경쟁력

이 도표는 선별된 도시에서 선임 소프트웨어 개발 엔지니어의 급여에 지출되는 비용을 비교한 것이다. 캐나다 도시들은 도쿄, 뉴욕, 파리, LA 등 세계 중심도시들에 비해 경쟁 우위에 있다. 선임 소프트웨어 개발 엔지니어는 사내 다른 직원들에게, 또는 의뢰인에게 직접 프로그래밍의 모든 측면에 대하여 기술 지원과 지침을 제공한다. 이들은 높은 수준의 분석, 진단, 문제해결을 책임진다.

- ▶ 도표상의 보수 수치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인센티브나 성과급 같은 추가보수도 포함되어 있다.

### 선임 소프트웨어 개발 엔지니어



출처: iDi 벤치마크, 타워스왓슨, 2010/2011 세계 50대 급여정책 보고서.

## 캐나다의 소프트웨어 산업: 개관

###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

**밴쿠버**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소프트웨어 산업의 중심지이다. 우선 이곳에는 전 세계에 5곳밖에 없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개발센터 중 하나인 마이크로소프트 캐나다개발센터(Microsoft Canada Development Centre)와 주문형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개발하는 IBM 태평양개발센터(IBM Pacific Development Centre)가 자리 잡고 있다. 그 외에도 인텔(Intel), 브로드컴(Broadcom), 3M, 오라클(Oracle), 노키아(Nokia), ABAS소프트웨어(ABAS Software), 세이코엠펜(Seiko Epson) 등의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들을 찾아볼 수 있다.

밴쿠버가 시장 강점을 지닌 분야는 콘텐츠 관리, SaaS(서비스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e-커머스, 보안, 디지털 영상, 웹 2.0 등이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빅토리아대학(University of Victoria), 사이먼프레이저대학(Simon Fraser University)에서 인재를 얻고 있다.

### 앨버타주 ○

오라클, HP엔터프라이즈서비스(HP Enterprise Services, 구 EDS), 오토데스크(Autodesk), CGI 등의 선도기업들을 보유한 **에드먼튼**은 여러 비즈니스 분야에 대한 전문성으로 널리 알려진 도시이다. 그러한 분야로는 주문형 프로그래밍, 디지털 콘텐츠 생성, e-러닝, 에너지 및 자원 산업 소프트웨어, 재무 및 공정 관리 소프트웨어, 공간정보 및 원격감지 시스템과 관련 소프트웨어 등이 있다. 캐나다 최대의 정보통신기술(ICT) R&D 컨소시엄인 TR랩스(TRLabs)도 에드먼튼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이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은 앨버타대학(University of Alberta)과 노던앨버타기술대학(Northern Alberta Institute of Technology) 졸업생들을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다.

### 서스캐처원주 ○

**새스캐톤**에는 베시마네트웍스(Vecima Networks), CGI, GE헬스케어를 필두로 300개 이상의 기타 ICT 기업이 자리 잡고 있다. 이곳은 캐나다 최대의 정보시스템 관리 서비스 공급업체인 ISM캐나다(IBM 캐나다의 자회사)의 본거지이기도 하다.

서스캐처원주가 보유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건으로 관리 시스템, 내장형 실시간 시스템에 대한 전문기술은 세계 각지로 수출된다. 인재 풀은 캐나다에서 최초로 애플(Apple Inc.) 아이폰용 애플리케이션 개발 관련 강좌를 제공하고 있는 서스캐처원대학(University of Saskatchewan)과 레지나대학(University of Regina)에서 양성된다.

### 마니토바주 ○

**위니펙**의 ICT 산업지구에는 인포매그네틱스 테크놀로지스(InfoMagnetic Technologies), 시에라시스템즈(Sierra Systems), EPIC인포메이션 솔루션즈(EPIC Information Solutions), PCGI, 이미지넷 리소스(Imaginet Resources Corp.), 모멘텀 헬스웨어(Momentum Healthcare), 온라인비즈니스 시스템즈(Online Business Systems), 프로테그라(Protegra) 등의 선도기업들과 북미 최대의 재무설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체 EISI(이머징인포메이션시스템즈) 등이 포진해 있다. 위니펙 내 R&D 시설로는 마니토바대학(University of Manitoba) 산하 5,200만 달러 규모의 엔지니어링 정보기술컴플렉스(Engineering and Information Technology Complex), TR랩스(TRLabs), 유레카프로젝트 비즈니스인큐베이터(Eureka Project Business Incubator) 등이 있다.

위니펙대학(University of Winnipeg), 마니토바대학, 레드리버대학(Red River College)은 모두 ICT 업계의 인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교육 및 기술 훈련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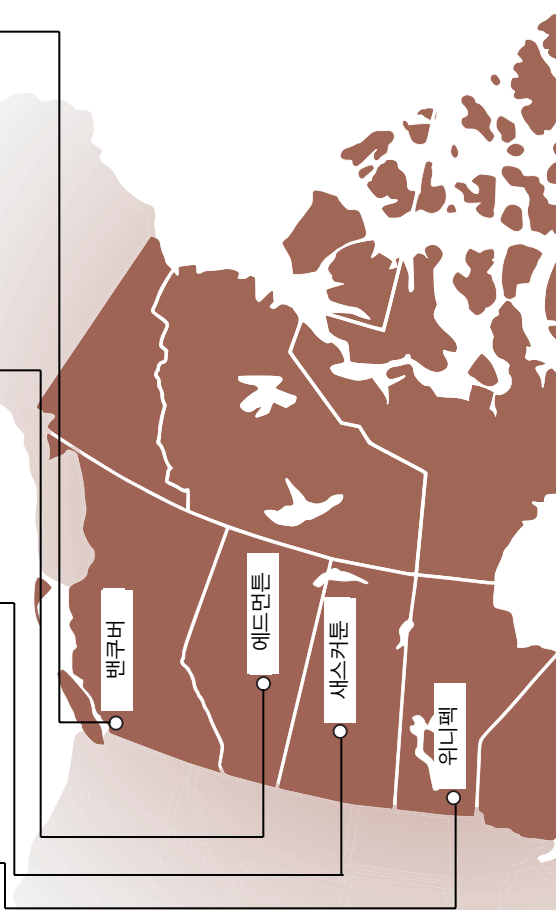
### 퀘벡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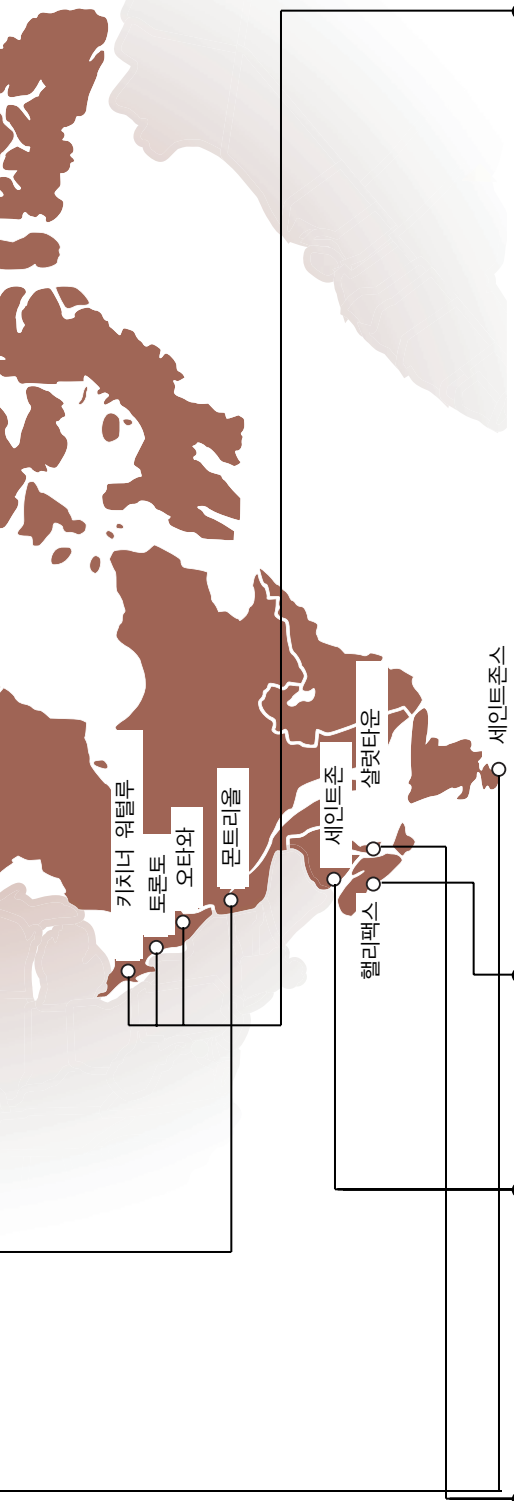
**몬트리올**의 소프트웨어 산업은 전자상거래, 고객관계관리, 기업자원계획 분야에 강력한 수직특새시장을 갖추고 있는 등 매우 다변화되어 있다. 이곳에 소재한 350개 이상의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작 기업은 연매출 12억 달러를 기록하고 6,100명 이상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

몬트리올 광역도시권에서 활동하는 주요 기업에는 IBM몬트리올 소프트웨어랩(IBM Montréal Software Lab), CGI, DMR(후지쯔), 다쏘시스템즈(Dassault Systèmes), 에릭슨캐나다(Ericsson Canada), 메디솔루션(MediSolution), SAP, 소시에테그릭스(Société GRICS) 등이 있다. 몬트리올은 세계적인 대학 4곳과 기타 7개의 고등교육기관을 통해 수많은 졸업생 인력을 소프트웨어 기업에 제공한다.

### 뉴펀들랜드 래브라도주 ○

매사추세츠에 본사를 둔 프로그레스 소프트웨어(Progress Software)사는 2008년 **세인트존스**에 지사를 개설함으로써 기술사업 부문의 확장을 꾀했다. 이러한 결정은 메모리얼대학(Memorial University)에서 수학한 뛰어난 인재 풀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얼마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이었다. 세인트존스는 베라핀(Verafin), 파식스(Pathix), Q5시스템즈(Q5 Systems), 카머플라주 소프트웨어(Camouflage Software), 클리어리스크(ClearRisk), 그레이퍼스트(Greyfirst Corp.), 엑스웨이브(xwave), 플래이트 컨설팅(Plato Consulting), 제드IT솔루션즈(zedIT Solutions)와 같은 기업 소프트웨어 및 e-건강 기업들의 본거지이다. 그밖에 고객관계관리, GPS 애플리케이션, 석유가스산업, 해양기술, 채광, 제조업, 교육 분야에 활용되는 소프트웨어에 주력하는 기업들도 있다.





## ○ 온타리오주

**키치너-워털루**는 오픈텍스트(OpenText)와 블랙베리 스마트폰의 디자인 및 제조사인 리서치인모션(Research in Motion, RIM) 등의 세계적 ICT 기업들로 유명한 곳이다. 이곳에 위치한 첨단기술 기업 700개사는 윌프리드 로리어대학(Wilfrid Laurier University)과 워털루대학(University of Waterloo)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혜택을 얻는다. 기업이 정신으로 널리 인정받는 워털루대학 컴퓨터공학과 졸업생들은 이 지역에 사업체를 둔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과 같은 기업체에서 환영 받는 인력이다. 벨기에에 본사를 둔 진단영상 및 보건의료 IT 솔루션 공급업체 아그파헬스케어는 워털루에 새로운 연구개발 시설을 짓고 있다. 오라클(Oracle), 사이베이스(Sybase), 맥아피(McAfee)와 같은 다국적 선도기업과 캐나다 기업 DALSA도 이곳에서 활동하고 있다.

**토론토**는 캐나다에서 민간부문의 ICT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가장 밀집한 곳이다. 그뿐 아니라 일차리와 기업 수를 기준으로 볼 때 토론토 지역의 ICT 산업은 샌프란시스코와 뉴욕에 이어 북미에서 세 번째 규모를 자랑한다. 이곳에서 활동하는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 중 하나인 IBM은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IBM 소프트웨어 R&D랩을 운영하며 2,500명 이상의 개발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토론토에 소재한 다른 대기업으로는 후지쯔(Fujitsu), 록시오(Roxio), ABAS소프트웨어(ABAS Software) 등이 있다. 이 기업들은 토론토대학(University of Toronto), 라이어슨대학(Ryerson University), 센테니얼대학(Centennial College), 맥마스터대학(McMaster University)을 졸업한 고급인력을 유치한다.

캐나다의 수도 **오타와**에는 국가연구위원회 정보기술연구소(National Research Council Institute for Information Technology)와 칼턴대학(Carleton University)의 첨단실시간시뮬레이션랩(Advanced Real-Time Simulation Lab)을 비롯해 수많은 연구소가 포진해 있다. 이곳에 자리 잡은 1,600개의 첨단기술 기업은 오타와연구혁신센터(Ottawa Centre for Research and Innovation, OCRI), 캐나다첨단기술협회(Canadian Advanced Technology Alliance, CATA), 캐나다정보기술협회(Information Technology Association of Canada, ITAC)의 든든한 지원을 받고 있다.

이 밖에 IBM, 어도비(Adobe), 리서치인모션(Research in Motion)이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연구소들도 이곳에 위치한다. 오타와대학(University of Ottawa), 알곤킨대학(Algonquin College), 칼턴대학(Carleton University)이 오타와의 소프트웨어 산업을 뒷받침하고 있다.

## ○ 노바스코샤주

노바스코샤에는 500여 개의 ICT 기업이 있으며 그 중 대다수가 **핼리팩스**에 밀집해있다. 노바스코샤주 IT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매진하는 비영리 기관 디지털노바스코샤(Digital Nova Scotia)와 건설한 교육기관들이 업계를 든든하게 지원하고 있다. 킨(Keane), 제록스(Xerox), RIM, CGI, IBM캐나다, 엑스웨이브(xwave)에 이어 최근에는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아이아이 디지털 시큐리티(eEye Digital Security)까지 핼리팩스에 투자한 기업 대열에 합류했다.

## ○ 뉴브런즈윅주

매사추세츠를 근거지로 삼고 있는 Q1랩스(Q1 Labs)와 이네오퀘스트(IneoQuest)는 최근 **세인트존**에 진출했다. 세인트존은 e-청구서와 e-거래내역서 개발업체로 유명한 화이트힐 테크놀로지스(Whitehill Technologies), 미육군과 네덜란드 해군에 공간정보관리 솔루션을 공급하는 선도기업 카리스(CARIS)가 소재한 곳이기도 하다. 이곳에서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여러 기업 중에서도 이노바시아(Innovatia), 마리너파트너스(Mariner Partners), T4G, 엑스웨이브(xwave)는 e-커머스,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지원, 멀티미디어, e-러닝, VOIP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전문기술을 제공한다. 뉴브런즈윅대학(University of New Brunswick), 세인트토마스대학(St. Thomas University), 마운트앨리슨대학(Mount Allison University)에서 재능 있는 인력을 공급한다.

## ○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주

**살렛타운**은 델타웨어 시스템즈(DeltaWare Systems Inc.), 타임리스 테크놀로지스(Timeless Technologies), 벨에일리언트(Bell Aliant), CGI, 엑스웨이브(xwave), 콕스데일(Cogsdale) 같은 대기업들의 본거지이다. 살렛타운의 소프트웨어 업계는 전문가용 소프트웨어 개발, 건강 영상 애플리케이션, 금융 및 인적자원 분야용 데이터베이스 개발, 혁신적인 상용 학습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전문분야를 제시한다.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대학(University of Prince Edward Island)은 고도로 숙련된 졸업생 인력을 업계에 공급한다.

## 캐나다의 경쟁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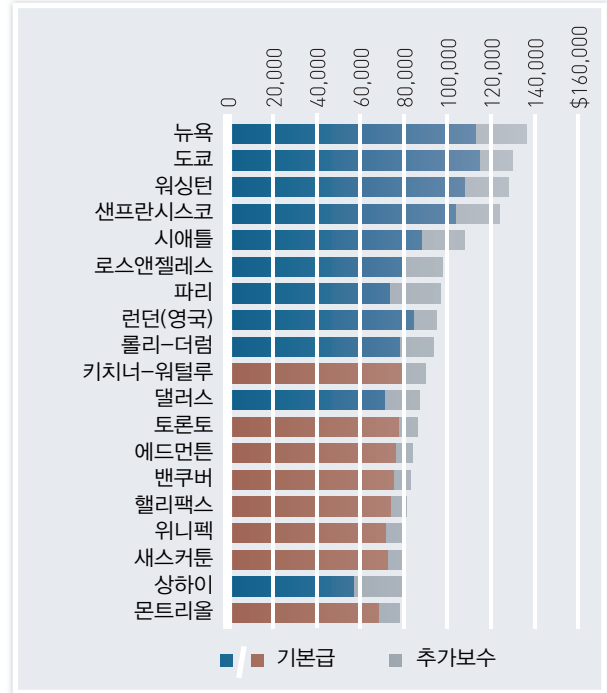
### 장점:

#### 프로그래밍 부문의 임금비용 경쟁력

선임 프로그래머는 복잡한 프로그래밍 문제들을 처리하며, 다양한 운영시스템 애플리케이션과 기타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디자인 설계, 디버깅, 기록 및 검사에 참여한다.

- ▶ 도표상의 보수 수치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인센티브나 성과급 같은 추가 보수도 포함되어 있다.

### 선임 프로그래머



출처: fDi 벤치마크, 타워스왓슨, 2010/2011 세계 50대 급여정책 보고서.

### 장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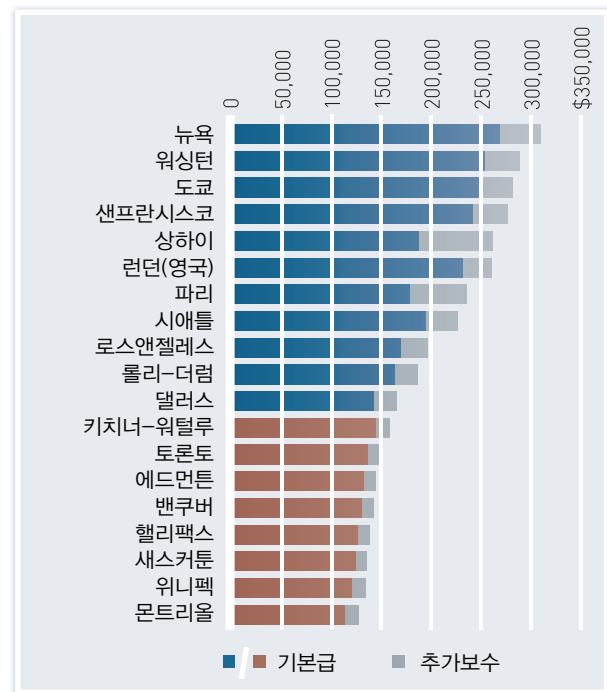
#### R&D 부문의 임금비용 경쟁력

R&D부문 고위직 인력의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볼 때 캐나다 도시들은 미국, 아시아, 유럽 도시들에 비해 경쟁 우위에 있다.

기업의 R&D 기능을 총괄하는 R&D부문 임원은 일정한 숫자의 국가나 단일 제품라인에 대한 대규모 R&D 센터에서 연구팀을 지휘할 수 있으며, 이들이 감독하는 제품은 기술의 수준이 매우 높고 다년간의 개발을 필요로 한다.

- ▶ 도표에 나온 보수 수준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인센티브나 성과급 같은 추가 보수도 포함되어 있다.

### R&D부문 고위직 인력



출처: fDi 벤치마크, 타워스왓슨, 2010/2011 세계 50대 급여정책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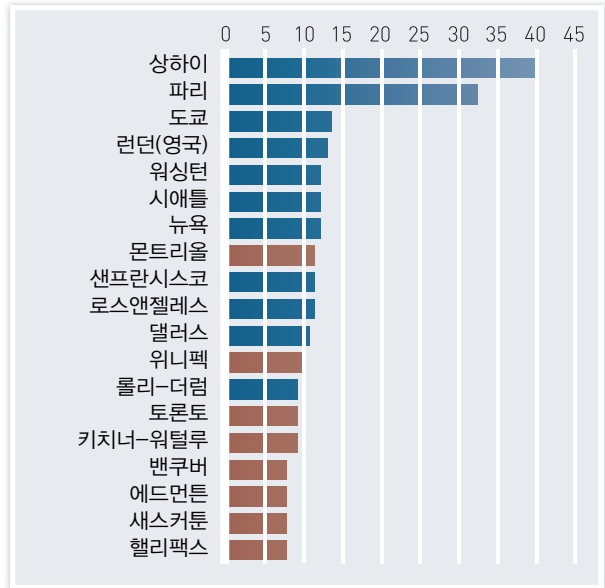
**장점:**

**낮은 사회보장 부담금**

캐나다의 근로자들은 매우 훌륭한 사회보장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그렇다고 기업이 과도한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캐나다의 경우,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장 비용은 일반적으로 미국과 유럽 각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 ▶ 이 도표는 근로자의 사회보장혜택에 대한 기업의 부담금을 나타내며, 수치는 근로자 임금에 대한 비율을 의미한다.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장비**



출처: fDi 벤치마크, 딜로이트인터내셔널, 국제 세금 및 사업 가이드(2009년 10월), 타워스왓슨, 2009/2010 세계 50대 급여정책 보고서, PwC, 세계세금 보고서(2009년 10월), 타워스왓슨 자료(2010년 8월)에 근거한 fDi 인텔리전스의 분석,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자료(2010년 8월)에 근거한 fDi 인텔리전스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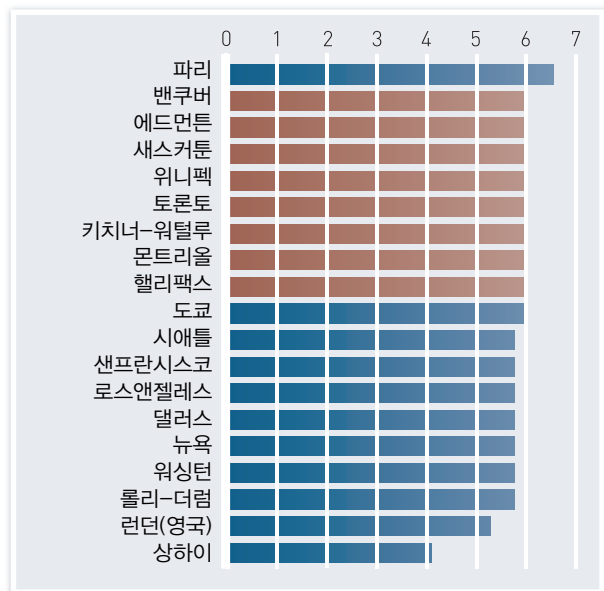
**장점:**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

캐나다의 세계적 수준의 현대적 공공 인프라는 도시와 공동체의 경제적 성장을 뒷받침한다. 캐나다의 도로와 교량, 철도, 항구, 공항은 최적의 입지를 자랑하며 건축과 관리 수준이 높고 안전하다.

- ▶ 이 도표는 교통, 통신, 에너지 등 인프라의 전반적 질을 평가한 것이다. 0점은 인프라의 개발수준이 '매우 낮음'을 뜻하고 7점은 '매우 높음'을 뜻한다.

**인프라 전반의 질**



출처: fDi 벤치마크,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보고서(2010/2011).

## 캐나다의 경쟁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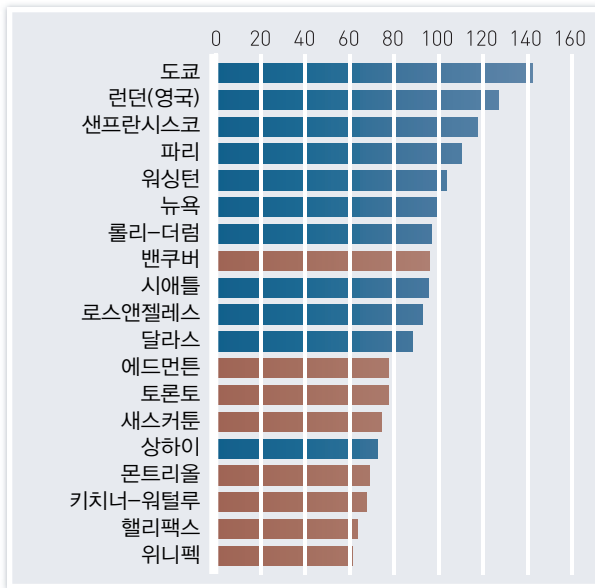
### 뛰어난 삶의 질과 합리적인 생활비

캐나다의 도시들은 합리적인 비용으로 높은 삶의 질을 제공한다. 에드먼튼, 새스커툰, 위니펙, 토론토, 키치너-워털루, 몬트리올, 핼리팩스와 같은 도시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생활비와 높은 삶의 질을 자랑한다. 2011년,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conomist Intelligence Unit)은 다시 한번 밴쿠버를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꼽았고, 토론토와 캘거리 역시 10위권에 들었다.

▶ 다음 도표는 뉴욕을 기준도시(가중치 100)로 보고 각 도시의 주거비 등 다양한 생활비를 평가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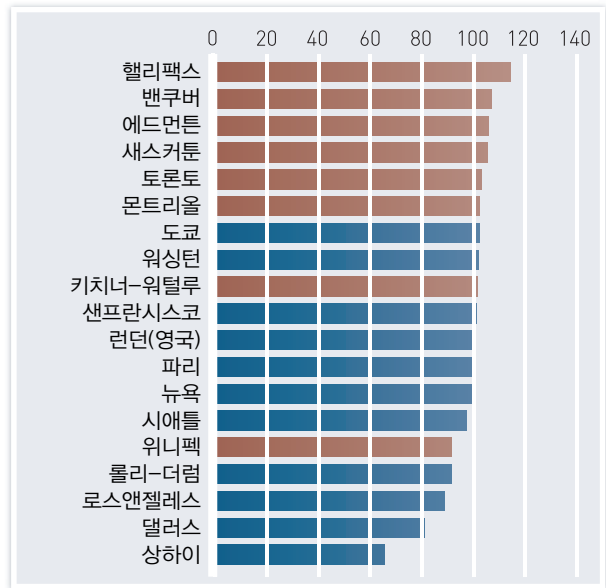
▶ 다음 도표는 뉴욕을 기준도시(가중치 100)로 보고 삶의 질에 관련된 요소를 평가한 것이다.

생활비 지수



출처: fDi 벤치마크, 파이낸셜타임즈 산하 fDi 인텔리전스의 분석.

삶의 질 지수



출처: fDi 벤치마크, 파이낸셜타임즈 산하 fDi 인텔리전스의 분석.

## 투자지역 벤치마킹

상기 표와 그래프는 파이낸셜타임즈(Financial Times Ltd)가 제공하는 서비스인 fDi 벤치마크(fDi Benchmark, www.fdibenchmark.com)가 작성한 것이다. 이 검색도구는 업계에서 인정받는 데이터베이스와 입지분석에 근거하여 특정 부문과 투자사업에 대한 전 세계 국가, 지역, 도시의 매력도를 평가한다.

▶ 이 문서에서 벤치마킹 대상으로 선정된 캐나다 및 외국 도시들은 소프트웨어를 생산 및/또는 개발하는 기업들이 모여 있는 곳들이다.  
 선정도시: 델러스, 에드먼튼, 핼리팩스, 키치너-워털루, 런던(영국), 로스앤젤레스, 몬트리올, 뉴욕, 파리, 롤리-더럼, 샌프란시스코, 새스커툰, 시애틀, 상하이, 도쿄, 토론토, 밴쿠버, 워싱턴D.C., 워니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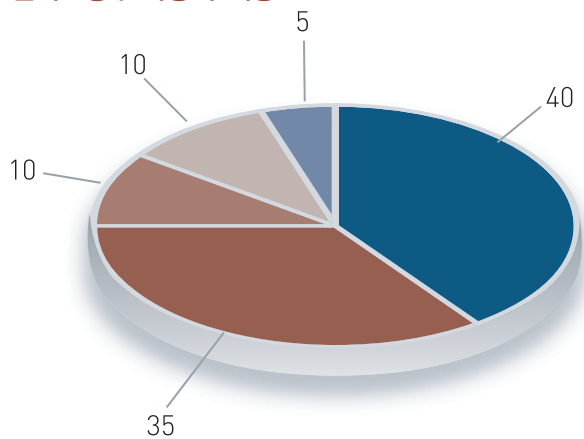
▶ 다음 기업 프로파일은 직원 100명으로 구성된 도심 소재 소프트웨어 개발 센터를 나타낸 것이다.

### 소프트웨어 개발 센터

| 비용 요소             | 사용량                 |
|-------------------|---------------------|
| 평방미터              | 건물                  |
| 총 사용면적(시내 사무실 임대) | 2000 m <sup>2</sup> |

| 직원유형                  | 인원         |
|-----------------------|------------|
| <b>일반관리</b>           |            |
| 부서 관리자                | 1          |
| <b>IT</b>             |            |
| 컴퓨터 오퍼레이터             | 28         |
| 프로그래머                 | 25         |
| 선임 프로그래머              | 6          |
| 선임 소프트웨어 개발 엔지니어      | 8          |
| 선임 웹개발자               | 3          |
| 소프트웨어 개발 엔지니어         | 14         |
| 기술공학 전문가              | 6          |
| 웹개발자                  | 5          |
| <b>R&amp;D/ 엔지니어링</b> |            |
| R&D 팀장                | 2          |
| <b>행정</b>             |            |
| 비서                    | 2          |
| <b>총인원</b>            | <b>100</b> |

### 질적모형 / 가중치 적용



| 가중모형 개요    | 가중치 |
|------------|-----|
| 노동가용성과 질   | 40% |
| 산업클러스터의 존재 | 35% |
| 인프라 및 접근성  | 10% |
| 일반 사업환경    | 10% |
| 주거환경       | 5%  |

## 캐나다의 경쟁력

캐나다는 수많은 장점과 최고의 잠재력을 자랑하며, 기업들이 세계적 수준의 탁월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곳입니다.

### 고급 인력

캐나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가운데 2위의 고등교육 수준을 자랑합니다. (출처: IMD, 2010년 세계경쟁력연감(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10))

### 유리한 사업환경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향후 5년간 G7 국가들 가운데 가장 사업하기 좋은 곳으로 캐나다를 꼽았습니다. (출처: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 사업환경순위(Business Environment Ranking), 2011년 3월)

### 견실한 경제

2009년 3분기부터 캐나다 경제는 6분기 연속 성장하고 있고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감소된 일자리와 생산량 손실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출처: 캐나다 재무부, 2011년 예산)

### 금융 안정성

지난 3년간 캐나다의 은행시스템은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으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견실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여러 차례 받아왔습니다.

### 낮은 세율

신규 기업투자자에 대한 캐나다의 전반적인 세율은 G7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법인세율 역시 G7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출처: 캐나다 재무부, 2010년)

### 과학연구와 실험개발

캐나다는 매우 풍부한 과학연구 및 실험개발(SR&ED)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G7 국가들 중에서 R&D 주도 분야의 사업비용이 가장 낮습니다. (출처: KPMG, 2010 경쟁력 있는 대안(Competitive Alternatives 2010). OECD)

###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캐나다의 NAFTA가 제공하는 이점을 통해 투자자들은 4억 4,800만 명이 넘는 북미 소비자들과 대륙 전체의 GDP 합산액이 미화 16조 3,000억 달러를 넘어서는 대규모 시장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출처: 세계은행, 세계개발지표 데이터베이스(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 2010년)

###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곳

세계적 수준의 대학, 널리 인정받는 보건 의료 체계, 깨끗하고 친절한 도시들, 멋진 풍경을 고루 갖춘 캐나다는 사업투자자와 근로, 생활, 가족 부양을 위한 최적의 장소입니다. (출처: 유엔개발계획, 2010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 2010),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 2010 살기 좋은 도시 보고서(Global Liveability Report 2010))



캐나다에 투자하십시오.  
성공의 시작입니다.

#### 캐나다 투자청

외교국제통상부

캐나다 온타리오주 오타와

서섹스 드라이브 111(K1N 1J1)

[vp.investincanada.com](http://vp.investincanada.com)

카탈로그 번호: FR5-38/6-2011E

ISBN 978-1-100-18411-1